

# “K-선비문화 세계화”...장성 필암서원 전통 콘텐츠 ‘풍성’

전남 유일 '세계유산 서원' 등재  
풍류 다이닝·별빛서원 아카데미  
'문불여장성 과거시험 재현행사'  
설민석 강연 400여명 운집 인기



장성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필암서원을 무대로 하는 'K-선비문화' 조성에 나선다. 사진은 최근 필암서원 일대에서 개최된 '역사토크 사(史)랑방콘서트' 모습.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필암서원을 무대로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알리는 'K-선비문화' 중심지로 도약한다.

18일 장성군에 따르면 을 한해 동안 필암서원이 지난 독보적인 역사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유산 필암서원 K-선비문화 프로젝트'를 다각도로 추진한다.

군은 선비들이 답소를 나누던 정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다가오는 하반기부터 특색 있는 체류형 프로그램을 대거 선보인다.

고즈넉한 서원의 야경 속에서 전통 밥상을 맛보는 '풍류 다이닝'과 선비문화의 깊이를 배우는 '별빛서원 풍류아카데미'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유생 복장을 하고 직접 과거시험을 치러 보며 조선시대 선비의 삶을 피부로 느껴보는 '문

불여장성 과거시험 재현행사'도 함께 개최돼 생생한 역사 체험의 장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표 누리집을 전면 구축하고, 서

원 내 소장 중인 고문서들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선비문화 아카이브' 조성 사업도 속도

를 내며 지속가능한 역사문화 거점 기반을 다

진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첫걸음으로 최근 필암서원 일대에서 개최된 '역사토크 사(史)랑

방콘서트'는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400여 명의 관람객이 운집해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강연자로 나선 설민석 강사는 필암서원에 배향된 허서 김인후 선생의 강직한 삶과 인종 임금과의 각별했던 우정, 안타까운 사별에 이르는 서사를 1시간 동안 특유의 몰입감 넘치는 화법으로 풀어내 큰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 야외 잔디밭에서 열린 붓글씨 쓰기, 유생복 입어보기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관람객 동선을 고려한 주 무대와 대형 스크린 배치, 주차 공간 확보 등 세밀한 현장 관리도 관람 편의를 극대화했다.

심우정 장성군수 권한대행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 꾸준히 다져온 선비문화 활성화 노력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며 "필암서원이 세계 속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K-선비문화의 독보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지역 유일의 세계유산 서원인 장성 필암서원은 김인후 선생의 학덕과 지조를 기리기 위해 지난 1500년에 지어졌으며,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공식 등재됐다.

/장성=김문태 기자

## 보성군 “신록 품은 ‘민간정원’에서 힐링하세요”

郡, 초암·갈멜·성림정원 등 5곳 추천  
260년 고백·녹차 미로 등 각양각색



보성군 검백면 주월산 자락에 위치한 전남도 민간정원 제12호 '성림정원(윤제림)'에서 방문객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이 초록빛 신록이 짙어지는 계절을 맞아 자연 속 쉼과 치유를 만끽할 수 있는 전남도 지정 민간정원 5곳을 추천하며 생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18일 보성군에 따르면 전남도 민간정원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정원주의 철학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지난 2017년부터 도내 31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 중 보성에는 총 5개소가 등록돼 저마다의 개성과 다채로운 사계절 풍광을 뽐내고 있다.

먼저 전남 제3호인 득량면 '초암정원'은 260년 세월을 품은 종가 고택과 넓은 편백림이 어우러진 난대상록정원으로, 애국가에 등장하는 철갑소나무 등 진귀한 희귀 수목을 만나볼 수 있다.

제6호인 웅치면 '갈멜정원'은 약 3만4천㎡ 규모에 명품 정원수와 한반도 지형을 닮은 연못이 조화를 이루며, 고즈넉한 한옥 펜션을 갖춰 체류형 힐링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검백면 주월산 자락의 제12호 '성림정원(윤제림)'은 60여년간 가꾼 숲정원으로, 아름다운 편백숲을 비롯해 수국원·핑크몰리원 등 계절별 테마정원과 캠퍼스를 갖춘 산림복합문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와 함께 보성읍 활성산 자락에 자리한 제17호 '꿈꾸는 숲 선유원'은 40여년 된 편백나무 숲과 300여종의 식물이 따뜻한 경관을 선사하고, 인근 한국차박물관 등과 연계한 산림 치유 코스로도 인기가 높다.

끝으로 보성읍 봉산리의 제25호 '골매대 요리사의 정원'은 4만5천㎡ 부지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녹차 미로정원을 조성해 독특한 체험형 랜드마크로 떠올랐으며 가족 단위 관광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자연 속 쉼은 물론 정원마다 담긴 고유한 이야기까지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며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보성만의 특색 있는 감성 여행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 고흥군, 직류 기반 '스마트팜 에너지 플랫폼' 실증

전남TP 등과 사업비 91억 투입  
AI 기반 에너지 순환 모델 구축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일환으로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국비 64억6천만원 등 총사업비 91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기존 교류 방식에서 발생하는 전력 변환 손실을 직류 시스템으로 최소화해 스마트팜 농가의 전기요금과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골자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을 전격 도입해 농가별 전력 생산·소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잉여 전력을 상호 공유·거래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순환 모델' 구축도 병행 추진한다.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에는 전남TP를 비롯해 티아이프, 이음아이씨티, 광안이앤씨, GS건설,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등 다수의 전문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사업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스마트농업과 신재생에너지를 융합한 미래형 에너지 모델이 될 것이다"며 "농가의 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 곡성군, 도박 고위험군 조기 발굴 나섰다

도박예방치유센터와 MOU  
심리치료의료 지원 등 추진

이번 협약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도박 중독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우울증 등 복합적인 정신건강 위기 사례에 대해, 단편적인 대응을 넘어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치유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자살 고위험군 안전망 구축은 물론, 도박 문제 예방과 회복을 돕는 긴급 구조 및 사례 연계에 적극 힘을 모은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과 심리치료, 의료·법률 지원 등 다각적인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 등 상호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윤현주 센터장은 "도박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군민들이 더욱 촘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18일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군민 정신건강 증진 및 도박 문제 예방·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 여수섬박람회, 식음·판매시설 운영사업자 공모

식당·마켓·푸드트럭 등 81곳 모집

야로 구성됐다.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뒷받침할 양질의 관람객 편의 시설 구축에 나섰다.

18일 조직위에 따르면 오는 9월 열리는 박람회 기간 중 행사장 내에서 운영될 식음·판매시설 임대사업자 81곳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위생적이고 특색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 운영 규모는 총 89개소이며, 구체적으로 식당 23개소, 마켓(판매시설) 38개소, 푸드트럭 19대, 카페·편의점·기념품점 각 3개소 등 6개 부

이 가운데 마켓은 1개월 단위로 임점할 업체 76곳을 별도 추천하고, 나머지는 분야별 총괄 사업자 5곳을 각각 선정한다.

식당은 이달 28일, 마켓과 푸드트럭은 각각 27일과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카페와 기념품점은 다음달 5일 마감이며, 대규모 행사 운영 경험과 현장 대응 역량, 지역 식재료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월 중으로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임대시설은 박람회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다"며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우수 사업자를 선정해 관람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 내일부터 담양 죽화경 데이지장미정원 축제

6월6일까지...사진 콘테스트도



담양군은 18일 "전남도 제2호 민간정원인 죽화경에서 '작은 들꽃부터 화려한 장미까지,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정원을 주제로 20일부터 6월6일까지 제17회 죽화경 데이지장미정원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사진>

죽화경은 수백 종의 초화류와 관목이 데이지, 장미와 어우러져 매년 5월이면 아름다운 정원 풍경을 선보이는 대표적인 민간정원으로 다양한 계절 꽃과 야생화가 조화를 이루며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축제 기간 데이지와 장미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봄 정원의 매력을 감상하며,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산책과 힐링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축제 기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사진 콘테스트도 진행된다.

죽화경은 불철 '데이지장미정원축제'와 여름철 '윙글수국축제'를 개최하며 계절마다 색다른 정원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 장흥군,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합동 단속

탐진강 일대...원상복구 요청

산면 부춘리를 직접 찾아가 불법시설물 설치 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장흥군이 지역 내 하천과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시설물을 정비해 군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청정 자연환경 조성에 나선다.

18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부군수 주재로 재난안전과와 산림휴양과 등 4개 부서 5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정비 TF 2차 점검 회의'를 열고 부서별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무단 점유로 인한 군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노영환 부군수는 회의 직후 대표적 인 상습 적발 구역인 국가하천 탐진강 일대 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확인된 행위자를 직접 만나 즉각적인 조치 철폐와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청했다.

군은 앞으로도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합동 단속을 벌이는 한편, 올바른 하천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 및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노영환 부군수는 "불법 행위로 인해 지역의 청정 자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군민 누구나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깨끗한 하천-계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노영환 기자